

박찬경의 낮은 목소리

December, 2019 | 윤혜정 에디토리얼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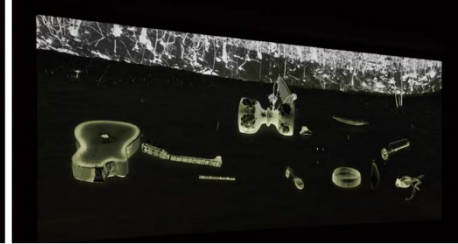
ART

박찬경의 낮은 목소리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시공간의 역사적 맥락을 꾸준히 관찰해온 저만의 날 선 통제의식으로, 현대미술가 박찬경은 동시대 미술과 그 너머 삶에 관한 유의미한 질문과 답, '모임'을 제안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상설 동양 미술의 마당인 <역사> 2019년에 열린 박찬경 작가 10주년 기념 전시를 소개하는 영상. 4개의 인물이 등장해, 박찬경의 삶과 작품에 두각 있게 비쳐왔던 그의 삶과 기업을 축적하고 단단한 시대를 만들어낸 과정을 소개한다.



155분까지 영상 <눈개 온 보살>(2019)은 특수효과(비비 영상)를 통해 공간, DP(영상사)가 연출하며 익숙한 이미지를 판타지화할 수 있도록 한다. 2작가 뒤쪽에 자리한 비비(노수)와 영애(수연)는 2009년 12월 25일(수)부터 2010년 1월 15일(수)까지 21일간 전시된다.

나같이 보살 이몸을 땀다는 정을 일러바치고, 신의 권능을 파악으로 모방하려
는 현대인류의 욕망이 내재되었음을 일깨우며,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모를 위풍
당당한 권태이념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이야기(가) 결국 후쿠시마 쓰나미, 세월
호 참사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의 시대를 사는 이들을 향해 있음을 암시한다.
비기티브 필름으로 찍은 영상이라 어두운 곳은 붉게, 밝은 곳은 어둡게 보이는
데, 반전의 효과는 꽤 신랄할 뿐 아니라, 사후일관 건강의 관을 놓지 않고, 개인
생이 없음에도 모두 연결되는 이상한 여정에 동행하도록 독려한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얼마나 높은
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그들 정부를 꼬박꼬박 뉴스를 봤다. 측정기를
들고 다니는 건 기자나 작가나 아만가지겠지만, 박정호는 고발이 아니라 '공유합
으로써 메드와 공동체를 제안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의 자연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그는 직접 찍은 사진과 식물학자 모리 사토시, 시간(가)
카이가 마사미키와 같은 지역에서 채취한 생물 및 사물보 만든 '오트레디오그
래피 이미지'를 포착시키는데, 방사능 수치가 높은 부분이 더 환히 빛난다. '예
후쿠시마로 작업하는 걸본을 많이 받는데, 왜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걸
까?> 우라나미에도 비슷한 일정이 일어나겠어...'' 그가 작년까지 의도한
'재난의 현실은 촬영, 세트물 찍은 허구의 도시풍경 사진 <세트>(2000)와
나란히 배치되어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기묘한 혼돈을 야기한다.
이번 전시에서 박완장은 전과 달리 '공간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다.
<작은 미술관>을 구경한 낯은 담, 회랑, 벽에 장을 내서 차경을 가져오는 등의
시도는 '셀프 오리엔탈리즘'을 피해 전통건축을 추상화한 결과다. 특히 <작은
미술관>과 <눈개 온 보살> 사이에는 일종의 '대량'이 있는데, 전시 기간 다양
한 토크 프로그램이 도입처럼 열릴 곳이다. 그 중심에는 16개의 시멘트 판에 다
양한 무늬의 들결을 그려 넣은 작업 <해인>(2019)이 미동 없는 연못처럼 놓여
있다. 바다에 상리관습을 담고자 한 붓로 개념을 시멘트의 육감하고도 단절된
상대로 표현한 작품인데, 웃길 것 없는 이 풍경이 지극한 풍자라고 다급하다.
물동풍 기계에서 샷을 찍은 무늬에 앉아 둘러보니 두 개의 상반된 문구가 쓰인

<주연>(2009)이 온다. "지옥은 텅 비었다. 모든 악마들이 여기 와 있으니"
그리고 "지옥의 눈으로 보면 지옥은 텅 비어 있다". 결국 지옥은 없거나 '여기'
지속이란 얘기겠지만, 종교계에도 이 문구는 <눈개 온 보살> 전시장 입구를
장식한다. 그뿐만이. <눈개 온 보살>의 구원은 인위적이고, 이들의 죄의는 코
막하다. 재난의 땅은 속수무책으로 아름답고, 이승노의 유명작은 당연히 가까
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숨은 역설을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문물
한 건 모든 역사가 그렇듯 '연연'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의 건립 과정 영상에는 당시 화가로 출진 생의 건립노동자들의 영혼을 위로하
는 김은국 장편이 등장한다. 어쩌면 모두들 어떻게든 잊고자 애썼을 이 작은 역
사 역시 내가 알까만 이 전시장에 있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명백하다.
'미술관이 완성되기 전, <플랫북>이라는 전시가 열렸어요. 그때 어느 노년의
남자가 와서는 한참을 물었다는 거예요. 고문 받았던 기억이 나서 그런다고. 그
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어요? 여기서 전시를 하는데 과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군사시절이 단 몇 년 만에 미술관으로 바뀐다는 것, 구공과 위조의 강소
가 정신적 자유의 장소로 정면되는 데에 우리는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걸까
요? 물론 이곳이 기억하는 바는 커요. 하지만 이토록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
는 변화인가에 대한 질문은 누구도 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럴 이해하는 게 내
작업을 끌어주는 것보다 백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기 이몸을 단 대꾸도 전시보다 현실이 더 중요함을 순순히 인정하는 박완장
의 목소리는 침묵을 삼킨 듯 낮다. 현실을 관망하는 게 아니라 감히 지시하고 발
언하는 이의 침묵이다. 이번 전시에서 비평진과 비평가, 무관함과 허락이 동
시대별로 읽히는 건, 우리가 '현재'라는 격변의 시대를 읽는 주체라는 증거일
것이며, 과거에서 출발한 그의 작품이 더더욱 항적인 이유다. 질문과 답이 공존
하는 미술관을 나서는 길, 정자 책자로 구성된 북두칠성이 나올 때쯤였다. 코
를 서민과 소확행에 일의비하한 내가 '거름 잘 싣고 있나' 자부만 문득 고
개를 쓴 그날 이후, 나는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는 이른바 '적적성성(寂寂惺惺)
의 상태에 있다. ■ | 유재익(국립현대미술관) 인터뷰 | 손은나

사상(2019)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21일간 전시된다.



“자실 이런 순진한 이야기는 거의 예술에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때로 따옴표 친 ‘미술관은 어쩌면 현대에 거의 남지 않은 희망의 장소라 생각되기도 한다.’
-박정호